

LUXURY

March 2014



13TH ANNIVERSARY

서울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 29

패션디자이너 12인의 시그너처스타일

2014 화이트닝 트렌드, 'Light Up'

Cartier

Agenda



활보하는 인간의 섹시한 리듬

“아무 거리에서나 잠시 멈춰 지나가는 군중을 바라보라. 활보하는 인간에게서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뒤섞여 무작위적인 춤을 창조해낸다.”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국제갤러리 2·3관에서 열리는 개인전을 위해 내한한 영국 작가 줄리언 오피의 말이다. 신작 수집 점으로 채운 갤러리에는 생기와 리듬이 넘쳤다. 색색의 비닐을 오려 붙인 ‘비닐 페인팅’과 LED 동영상 작품 속 공통 소재는 활보하는 인간. 휴대폰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인간들이 따로 또 함께 생생한 기운과 리듬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전까지 굵게 그린 신체 라인과 그 위에 머리 격인 동그라미 하나만 덜렁 얹어놓은 작품을 선보인 그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디테일을 가미했다. 헤어스타일과 구두, 백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해 기존 작품보다 더 화려하고 풍성해 보인다. 줄리언 오피는 “서울 사람을 소재로 한 작업인데 저마다 패션 감각이 뛰어나 깜짝 놀랐다. 휴대폰 통화를 하거나 보는 사람이 어디에나 많은 것도 인상적이었다” 라고 말했다. 최초로 선보이는 2m 크기의 대형 두상 조각품도 놓치지 마시길. “가끔 내 아이들을 봐주는 옆집 사람들”의 두상을 특수 기기로 3D 스캔한 후 페인팅을 더해 완성한 작품. 얼굴선과 헤어스타일, 눈, 코, 입만 심플하게 표현해 또렷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

글 정성갑 기자

